

북한 김정은의 실제 영향력, 지도체제의 성격과 핵심 파워 엘리트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제사회와 한국에서 김정일 사후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의 위상과 관련하여 그를 ‘수습 지도자’로 보는 시각과 ‘준비된 지도자’로 보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두 시각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먼저 ‘김정은=수습 지도자’론은 김정일의 2008년 8월 건강이상 이전부터 김정은이 북한의 후계자로 내정된 사실을 간과하고 있고,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후 그의 후계체제 구축이 매우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정은=준비된 지도자’론은 김정은의 북한 내 위상 변화를 비교적 정확히 소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일 사후 북한체제가 장성택의 ‘섭정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이라는 주장이 해외의 다수 전문가들과 국내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장성택이 비군사 분야에서 김정은의 파워 엘리트 장악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의 군부 장악에는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섭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김정은의 핵심 측근 엘리트로는 군부와 공안기관에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 군 총정치국 조직 담당 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 부장 등이 있다. 리영호는 김정은의 군대에 대한 명령지휘체계 수립을, 김정각과 김원홍은 군부 엘리트들에 대한 장악을, 우동측은 북한의 파워 엘리트 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뒷받침하고 있어 현재 김정은 체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가능성이 희박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보다 북한체제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대화를 통한 대북 영향력 확대와 한·중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 27) 발표자료임.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김정은의 영향력 평가를 둘러싼 쟁점
 - 가. ‘수습 지도자’론 vs. ‘준비된 지도자’론
 - 나. 후계자 내정 시점: 2007년 1월 vs. 2008년 11월
 - 다. 김정은의 군부와 공안기관 장악 개시 시점: 2009년 vs. 2011년
 - 라. 김정일 사망 시 김정은의 영향력 평가
3. 장성택의 ‘섭정 집단지도체제’론 평가
 - 가. 장성택 섭정체제론과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과정에 대한 몰이해
 - 나. 핵심 실세들은 모두 장성택의 ‘최측근’?
4. 김정은의 핵심 측근 파워 엘리트: 군부와 공안기관을 중심으로
 - 가. 리영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군 총참모장
 - 나. 군 총정치국의 김정각 제1부국장과 김원홍 조직 담당 부국장
 - 다.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과 기타 엘리트
5. 맺음말: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 과제

1. 문제의 제기

-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의 17년 철권통치 시대가 끝나고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가 사실상 개막되었음.
 - 북한이 5대 주요 권력기관(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공동 명의로 12월 19일 발표한 부고는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서계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김정은을 김정일과 같은 북한의 절대 권력자인 ‘수령’으로 받들 것임을 명백히 했음.¹⁾
- 북한이 12월 19일 발표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장의위원 중 유독 김정은에게만 ‘동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김정은과 다른 엘리트들을 차별화했음.
 - 12월 20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는, 김정은의 이름을 다른 위원들 이름보다 세 배 이상 큰 활자를 사용하여 김정은이 다른 모든 파워 엘리트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었음.

〈사진 1〉 김정일 사망 관련 국가장의위원회 명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제어: 100 (2011)년 12월 20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국가장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김 정 은 동 지											
김영남	조병주	김영철	장철	고수일	오철산	장영석					
최영립	한광복	강표영	장자립	비국준	손정남	김명성					
비영호	백세봉	김형룡	김정숙	신승훈	정운학	허성결					
김영준	비영수	리용환	강종윤	리태철	차경일	노광근					
전영호	최희정	김준삼	김병호	양현국	장기섭	정봉근					
김국태	오일정	최경성	차승수	리희수	최태일	박상범					
김기남	김정립	리명수	방만길	리철	최영도	최봉호					
최대복	채희정	전희정	윤동현	현상주	비용주	정봉평					
양형집	김기룡	리영결	고병현	비명길	전광록	전경선					
장석주	장병규	현영철	리봉덕	보성실	전찬화	전성원					
변영립	김병률	최부일	박종덕	동정호	서동명	최용문					
리용부	홍인범	양동훈	최영덕	강민철	진성용	김태열					
김경희	비만권	리복죽	정인국	김희영	지재룡	김영숙					
김양진	주영식	김승철	전용국	조영철	김영재	차진철					
김영철	곽병기	박광철	비영근	황학현	비용호	차민철					
박도준	오수용	리병삼	황순희	안동준	홍서현	리일남					
최동채	최연진	전창목	백계동	백계동	김동일	김상수					
장성택	박태덕	오금철	김동일	홍광순	김동은	박명순					

자료: 『로동신문』, 2011/12/20.

주: 밑줄은 필자

- 북한은 12월 24일부터 김정은이 사실상 ‘최고사령관’임을 강조하기 시작하다가 12월 말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음.
- 12월 24일자 로동신문 정론은 “김정은 동지를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우리의 장군으로 높이 부르며 선군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김정은이 사실상 최고사령관이며, 곧 공식적으로 최고사령관직에 추대될 것임을 시사했음.
- 12월 30일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는 김정일의 ‘2011년 10월 8일 유훈’에 따라 김정은을 군 최고사령관직에 추대했음.

〈사진 2〉 김정은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보도



자료: 『로동신문』, 2011/12/31.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월 24일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사수 구호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김정은이 사실상 당 총비서직을 수행하고 있음도 밝혔음.
- 북한에서 김정은이 당과 군대의 제1인자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김정은을 여전히 ‘수습 대장’인 것처럼 간주하고 그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거나 마치 ‘섭정’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 김정은은 ‘준비된 지도자’이며 김정일 생시에 이미 그의 파워가 김정일의 파워를 능가했다는 주장도 있어 대북 인식과 관련해 많은 혼란

**12월 30일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는 김정일의
‘2011년 10월 8일
유훈’에 따라 김정은을
군 최고사령관직에
추대했음**

**‘김정은=수습
지도자’론의 입장에
의거하면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북한의
1인자로 내세워지고
있지만 그의 실제
권력은 취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김정은=준비된
지도자’론의 입장에
의거하면 김정은의
권력은 매우
안정적이고 견고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 나타나고 있음.

- 필자는 본고의 제2절에서 김정은의 영향력 평가를 둘러싼 쟁점을 먼저 분석하고, 제3절에서 장성택의 ‘섭정 집단지도체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며, 제4절에서 김정은의 핵심 측근 파워 엘리트들을 지면 관계상 군부와 공안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 국정부의 대북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김정은의 영향력 평가를 둘러싼 쟁점

가. ‘수습 지도자’론 vs. ‘준비된 지도자’론

-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김정일이 김정은 쪽으로 후계 결정을 굳힌 것은 2008년 11월경이고, 2009년 1월에 김정은이 북한에서 후계자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2인자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수습(修習)’ 단계에서 권력을 승계하게 되었다고 주장함.²⁾
 - 이 같은 입장을 여기에서는 편의상 ‘김정은=수습 지도자’론이라고 명명하기로 하겠음.
- 다른 전문가와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된 것은 2007년 1월이며, 이미 이때부터 권력승계 수업을 받아 김정일 사망 1년 전인 2010년에는 이미 김정은의 파워가 김정일의 파워를 능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함.³⁾
 - 이 같은 입장을 ‘김정은=준비된 지도자’론이라고 명명하기로 하겠음.
- ‘김정은=수습 지도자’론의 입장에 의거하면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북한의 1인자로 내세워지고 있지만 그의 실제 권력은 취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김정은=준비된 지도자’론의 입장에 의거하면 김정은의 권력은 매우 안정적이고 견고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이처럼 김정은의 실제 영향력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해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어느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나. 후계자 내정 시점: 2007년 1월 vs. 2008년 11월

- ‘김정은=수습 지도자’론은 김정일이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지

- 기 전까지 후계 세습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었다고 주장함.
- 김 총비서가 평소 “세습을 하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다”며 주변 고위 간부들의 후계 내정 건의를 외면해왔다는 것임.
 -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회복되면서 2008년 11월 장성택과 함께 김정은 쪽으로 후계 결정을 굽혔다고 주장함.
- ‘김정은 = 준비된 지도자’론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시점은 2007년 1월이며 당시 이를 알았던 인물들은 장성택, 현철해,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김정일 서기실 몇 명을 포함한 김정일의 최측근들뿐이었다고 주장함.
- 2009년 5~6월경에 북한군 내에서 학습 자료로 사용된 대외비 문건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이하 「위대성 교양자료」)는 “의미 깊은 2006년 12월 24일,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증서와 기장이 기여된 자리에서 주체의 선군혁명업무를 빛나게 이으실 것을 바라시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언급은 김정은이 이때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이 외에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2007년 3월 발언⁴⁾ 등 여러 자료를 참고할 때 김정은이 2008년 말에 갑자기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주장보다는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에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음.

다. 김정은의 군부와 공안기관 장악 개시 시점: 2009년 vs. 2011년

- 김정은의 군부 및 공안기관 장악과 관련해, ‘김정은 = 수습 지도자’론은 2011년 들어 김정일이 후계자 김정은에게 ‘제한적 권한’만을 주던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비로소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함.⁵⁾
- 이 같은 주장에 의하면 김정은은 2009년이나 2010년까지만 해도 군대와 공안기관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임.
 - 2012년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을 기해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김정은 기록영화는 그가 이미 2009년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때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김정은 = 준비된 지도자’론은 김정은이 2009년 2월경부터 군 총정치

여러 자료를 참고할 때 김정은이 2008년 말에 갑자기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주장보다는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에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음

북한 내부 자료인 「위대성 교양자료」에 의하면 이미 2009년 상반기부터 김정은의 ‘영군체계(군대에 대한 영도체계)’ 수립이 강조되고 있었음

국을 통해 군부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북한의 군부를 위시하여 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보안기관의 보고 라인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은 각종 고급정보 및 북한이 최근에 김정은 기록영화를 통해 공개한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함.

- 현재 김정은의 군대에 대한 명령지휘체계 수립과 관련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리영호 전 평양방어사령관이 군 총참모장에 임명된 것과 김정은의 군부 엘리트 장악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원홍 전 보위사령관이 군 총정치국 조직 담당 부국장에 임명된 시점은 모두 2009년 2월이었음.
 - 북한 내부 자료인 「위대성 교양자료」에 의하면 이미 2009년 상반기부터 김정은의 ‘영군체계(군대에 대한 영도체계)’ 수립이 강조되고 있었음.
 - 북한에서 영군체계는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수립되므로 김정은의 영군체계 수립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김정은이 이미 2009년 상반기에 최고사령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함.
 - 김정은이 국가안전보위부장직에 임명된 것은 2009년 4월경이므로, 그의 군과 공안기관 장악은 2011년이 아니라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음.

라. 김정일 사망 시 김정은의 영향력 평가

- ‘김정은 = 수습 지도자’론은 “김정은 부위원장은 그동안 ‘탈북 방지 조치’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정책적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습’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그런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2월 17일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후계 수업을 받기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홀로서기’의 혹독한 운명을 헤쳐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함.
- ‘김정은 = 준비된 지도자’론은 북한 고위 소식통을 인용하여 제3차 당대표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10년 7월경 “북한 권력의 중심이 김정은에게 쏠리기 시작하여 (당시) 권력은 김정일 : 김정은 : 장성택(김경희) + 기타(김영춘과 오극렬 등) = 30 : 60 : 5 + 5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음.
 -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는 2011년 8월에 다시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과 김정일의 권력을 비교해볼 때 각각 70%

와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주장은 필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파악한 정보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었음.

〈사진 3〉 김정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최태복 당중앙위원회 비서



자료: 『연합뉴스』, 2011/07/22.

- 결론적으로 ‘김정은 = 수습 지도자론’과 ‘김정은 = 준비된 지도자’론 간에 존재하는 쟁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김정은 = 수습 지도자’론은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와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북한의 대외비 문건, 고위 탈북자 증언, 각종 고급정보들에 기초해볼 때, 북한에서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2006년 말(또는 2007년 초)이며, 2009년 1월부터는 후계자로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되어 김정일과 김정은이 3년간 북한을 공동 통치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⁶⁾
- 현재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경험, 김정일 생시에 김정은이 이미 권력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은 사실, 김정은의 강한 권력의지와 카리스마, 외부세계에서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와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착을 통한 북한 파워 엘리트들의 기득권 유지 욕구, 봉건적 정치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김정은이 비록 완벽하게 준비된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이미 김정일

북한에서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2006년 말(또는 2007년 초)이며, 2009년 1월부터는 후계자로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되어 김정일과 김정은이 3년간 북한을 공동 통치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장성택이 주로 비군사 분야에서 김정은의 파워 엘리트 장악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의 군부 장악에는 관여하지 못했음

생시에 군대와 공안기관, 당의 권력을 상당 부분 물려받았으므로 선입견과 불충분한 정보에 의존하여 그를 ‘애송이’나 ‘수습 대상’으로 평가 절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임.

3. 장성택의 ‘섭정 집단지도체제’론 평가

가. 장성택 섭정체제론과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과정에 대한 물이해

- 김정은의 영향력과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해외에서는 장성택 섭정지도체제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면, 국내에서는 대체로 장성택 섭정지도체제 가능성을 주장하는 시각과 김정은의 단일지도체제 출범을 주장하는 시각이 대략 반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김정일 사망 직후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김정은이 아직 ‘독립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장성택은 아직 김정은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센터 소장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김씨 일가의 집단지도체제로서 실질적인 섭정체제”라며, “이는 김정은이 군, 노동당, 행정부, 보안·정보기관 내에 권력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집단지도체제는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 부위원장이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⁷⁾
- 국내의 일부 전문가들도 지난 12월 28일 김정일 영결식을 보며 “장성택이 김 위원장 와병 이후부터 사망 이전까지 줄곧 국정운영을 곁에서 보좌하며 사실상 국정을 대리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장성택이 주로 비군사 분야에서 김정은의 파워 엘리트 장악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의 군부 장악에는 관여하지 못했음.
 - 당시부터 현재까지 김정은의 군부 장악을 보좌한 인물들은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 군 총정치국 조직 담당 부국장 등임.
 - 군부와 공안기관에서는 2009년부터, 당중앙위원회와 다른 권력기관에서도 2010년부터 김정은을 거쳐 김정일에게로 보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김정일의 국정운영을 곁에서 보좌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장성택이 아니라 김정은이었음.

- 장성택 섭정지도체제론은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2009년 1월 후계자로 결정된 후 곧 중앙당과 군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에서 그에 대한 충성맹세 모임이 시작되었으며, 김정은이 동년 2월부터 군부틀, 동년 4월경부터는 공안기관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당과 국가기구까지 완전히 장악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함.
 -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에 대한 물이해가 곧 장성택의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로 연결되고 있는 것임.

나. 핵심 실세들은 모두 장성택의 ‘최측근’?

-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심 실세들을 모두 장성택의 ‘최측근’으로 간주함.
 - 한 전문가는 최근에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이뤄진 거의 모든 인사는 김 위원장 와병 이후 실질적으로 당을 장악하고 국정을 운영해온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 “김정은 후계체제에서 급부상한 리영호 군 총참모장은 장성택의 ‘분신’ 또는 ‘오른팔’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측근으로 꼽힌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음.
 - 이 같은 주장은 명백히 역사적 사실과 배치됨.
- 황장엽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한국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자·북한인권 문제 토론회’에 참석하여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길 경우, 그래도 다음을 이을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장성택이 제일 가깝다”고 지적하고, 장성택이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사방에 자기 사람을 박아놓았다”고 말한 2003년 7월 4일 이후 장성택의 공개활동은 갑자기 중단되었고, 이후 2004년 3월경에 장성택은 ‘종파(파벌)행위’와 ‘권력남용’ 등으로 직무정지되었음.
 - 이때 장성택의 핵심 측근들은 모두 좌천되거나 해임되는 운명에 처했는데, 김정일의 영결식 때 영구차를 호위한 김기남, 최태복, 리영호, 김영춘, 김정각, 우동측 중 장성택의 ‘최측근’으로 함께 처벌받은 인물은 아무도 없음.
- 리영호는 2002년 4월에 중장(한국의 소장에 해당)으로 승진한 데 이

2003년 7월 4일 이후 장성택의 공개활동은 갑자기 중단되었고, 이후 2004년 3월경에 장성택은 ‘종파(파벌)행위’와 ‘권력남용’ 등으로 직무정지되었음

**김정은의 측근 파워
엘리트들 중 장성택만
바라보고 다른
엘리트들의 역할은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으로는
현재의 북한 파워
엘리트 그룹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것임**

어 장성택의 공개활동이 중단된 이후인 2003년 9월에 평양방어사령관에 임명되고 1년 5개월 만에 중장에서 상장(한국의 중장에 해당)으로 초고속 승진했음.

- 리영호가 장성택의 '최측근'이었다면 장성택과 최춘황(전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 그의 측근들이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던 시기에 리영호가 초고속 승진할 수는 없었을 것임.
- 김정은의 군부 엘리트 장악에 있어서 현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홍 군 총정치국 조직 담당 부국장도 2003년에 군 보위사령관에 임명되고 상장으로 승진했음.
- 2003년은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가 사실상 북한체제의 제2인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떨치던 시기로 리영호와 김원홍은 장성택의 측근이 아니라 고영희의 측근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을 것임.

- 북한은 2011년 12월 29일 김정일 중앙추도대회 때 김정은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로 내세우고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 12월 30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김정은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음.
 - 당 총비서직도 2012년 안에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과 장성택의 '섭정'은 양립 불가능함.
 - 김정은은 2009년 1월 후계자로 결정된 후 북한의 파워 엘리트 인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고, 장성택은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음.
 - 김정은의 군부 엘리트 인사에는 장성택이 거의 관여하지 못했고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과 김원홍 군 총정치국 조직 담당 부국장이 주로 보좌했음.
- 현재 장성택은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조직지도부 부부장들과 함께 김정은을 보좌하면서 그의 인사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엘리트 중의 한 명임.
 - 김정은의 측근 파워 엘리트들 중 장성택만 바라보고 다른 엘리트들의 역할은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으로는 현재의 북한 파워 엘리트 그룹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것임.

〈사진 4〉 12월 24일 김정일 시신에 참배하기 위해
금수산기념궁전에 들어오는 김정은



자료: 『조선중앙통신』, 2011/12/26.

주: 박스 안의 인물이 장성택. 만약 장성택이 ‘섭정왕’이라면 북한 관영 매체가 결코 그의 몸의 일부가 잘린 이 같은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을 것임.

4. 김정은의 핵심 측근 파워 엘리트: 군부와 공안기관을 중심으로

-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파워 엘리트 장악력일 것임.
- 이 절에서는 특히 북한군과 공안기관 인사들 중 누가 김정은의 핵심 측근들이며, 그들이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분석할 것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파워 엘리트
장악력일 것임*

가. 리영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군 총참모장

- 리영호 군 총참모장은 현재 김정은의 군부 최측근 인사임.
- 고위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리영호를 추천한 인물은 오극렬 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고 함.

〈사진 5〉 김정은의 군부와 공안기관 핵심 측근들

**과거 김정일의
공개활동 사진을 보면
리영호가 거의 항상
김정은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이 같은
사실도 그가 김정은의
군부 최측근 인사라는
점을 잘 보여줌**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
군 총정치국
조직 담당 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 1942년생인 리영호는 강원도 통천군 출신으로 군부 내에서도 특정 파벌에 속해있지 않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며 리더십이 출중해 2009년 2월에는 김정은의 군대에 대한 명령지휘체계 수립을 위해 총참모장에 임명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위대성 교양자료」는 김정은의 ‘영군체계(군대에 대한 영도체계)’ 수립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김정일이 2009년 2월 11일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히고 있음.
 - 이 날은 김정은이 ‘수령의 후계자’로 결정된 지 약 1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임.
 - 바로 이날 김정일은 당중앙군사위원회 결정으로 리영호 평양방어사령관을 군 총참모장에 임명하는 등 군 상층부의 중대 개편을 단행했음.
- 리영호는 군대에 대한 김정은의 명령지휘체계를 수립하면서 2009년 하반기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실세로 부상하기 시작했음.
 - 2010년 9월 개최된 당대표자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직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임명되어 군부 인사 중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음.
 - 과거 김정일의 공개활동 사진을 보면 리영호가 거의 항상 김정은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이 같은 사실도 그가 김정은의 군부 최측근 인사라는 점을 잘 보여줌.

〈사진 6〉 김정일·김정은과 주요 군 간부의 은하수 10월음악회 관람



자료: 『로동신문』, 2011/10/12.

주: 김정은의 좌측에 리영호 군 총참모장이, 우측에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앉아 있음.

나. 군 총정치국의 김정각 제1부국장과 김원홍 조직 담당 부국장

- 김정각은 김정은에게 리영호 못지 않게 중요한 군부 최측근 인사임.
 - 1941년생인 김정각 대장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출신으로 1992년에 인민무력부 부부장에 임명되었으며, 2007년 10월경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직에 임명되어 병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는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음.
 - 김정각은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후 그의 군부 엘리트 장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동년 4월 국방위원직에 선출되었고, 리영호와 함께 군부 실세로 부상하게 되었음.
 - 김 제1부국장은 2010년 9월 개최된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직에 선출되었는데, 당규약 개정을 통해 군 총정치국의 위상이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격상되었으므로 그의 실제 영향력은 정치국 후보위원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는 같은 시기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장성택 행정부장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이 실제로는 다른 정치국 후보위원이나 위원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음.

김정각은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후 그의 군부 엘리트 장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동년 4월 국방위원직에 선출되었고, 리영호와 함께 군부 실세로 부상하게 되었음

**김원홍은 2009년 2월
김정은의 군부 장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군 총정치국에서
제1부국장 다음으로
중요한 조직 담당
부국장에 임명되었음**

- 북한은 지난 2월 15일 김정일의 70회 생일을 하루 앞두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공동으로 김정각 대장에게 차수 계급을 수여하는 결정을 채택했음.
 - 이로써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후 그의 군부 엘리트 장악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리영호 군 총참모장 및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같은 차수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조명록의 사망으로 공석 상태인 군 총정치국장에 향후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김정각의 차수 승진으로 인해 김정은의 군부 두 핵심 측근인 리영호와 김정각 간에 실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군 총정치국의 핵심 간부들 중 김원홍 조직 담당 부국장의 역할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김원홍은 1995년 평양방어사령부 정치위원, 1997년 7군단 정치위원을 거쳐 2003년 7월부터 보위사령관직을 수행했음.
 - 김원홍은 2009년 2월 김정은의 군부 장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군 총정치국에서 제1부국장 다음으로 중요한 조직 담당 부국장에 임명되었음.
- 김원홍은 2009년 4월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에도 임명되었음.
 -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그의 이름이 김경옥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군사 담당 제1부부장 바로 다음에 호명된 것은 그가 김경옥의 지도하에 군 총정치국에서 군부 엘리트들의 조직과 인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었음.
- 올해 김정은의 1월 1일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와 류경수 제105 땅크사단 방문(『로동신문』, 2012/01/02 보도) 그리고 2012년 은하수 신년음악회 관람(『로동신문』, 2012/01/03 보도), 음악무용종합공연 ‘영원토록 받들리 우리의 최고사령관’ 관람(『로동신문』, 2012/01/15 보도)에 김정각 제1부국장은 동행했지만, 김원홍 부국장은 동행하지 못했음.
 - 김원홍은 김정각이 동행하지 않은 김정은의 제169군부대 시찰(『로동신문』, 2012/01/19 보도), 공군 제354군부대 시찰(『로동신문』, 2012/01/21 보도), 제671대련합부대 지휘부 시찰(『로동신문』, 2012/01/22 보도), 허철용 운영 군수공장 시찰(『로동신문』, 2012/01/23 보도) 등에

수행함으로써 김정은의 군부 최측근 인사 중의 하나임을 과시했음.

다.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과 기타 엘리트

- 2008년 8월 뇌혈관계 이상 이후 엘리트들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 김정일 총비서는 2009년 4월경 김정은을 국가안전보위부장직에 임명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엘리트들을 감시하고, 김정일 사후에도 김정은이 엘리트들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했음.
 - 그 과정에서 군사조직인 국가안전보위부의 우동측 부부장이 김정은의 엘리트 장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
 - 우동측은 2009년 4월 인민군 상장으로 승진하고 국방위원에 임명된 데 이어, 동년 9월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10년 4월에는 상장에 임명된 지 단 12개월 만에 대장에 임명되는 초고속 승진을 보였음.
 -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후 보위부는 국경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이후 신규 탈북자 수가 급감하게 되었고, 탈북자 가족 색출 등 주민 통제도 강화하고 있음.
- 당중앙위원회에서도 조직지도부에서 군부 엘리트들의 조직생활과 인사를 담당하는 황병서 부부장과 오일정 민방위부장(또는 군사부장)은 2009년 9월 27일 중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단 6개월만인 2010년 4월 13일 상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등 김정은의 측근들은 단기간에 급부상하고 있음.
- 군부와 공안기관의 핵심 실세들인 리영호 군 총참모장과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 군 총정치국 조직 담당 부국장 그리고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이 모두 김정은의 핵심 측근들이어서 현재 그의 군부와 공안기관 장악력은 확고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군부와 공안기관의 핵심 실세들인 리영호 군 총참모장과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 군 총정치국 조직 담당 부국장 그리고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이 모두 김정은의 핵심 측근들이어서 현재 그의 군부와 공안기관 장악력은 확고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5. 맺음말: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 과제

- 김정일 생시에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은 매우 압축적이고도 고속도로 진행되었음.
 -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그보다 더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음.

**김정일의 사망과
동시에 북한 지도부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출범을
확정지었고, 김정은이
사실상 당 총비서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의
권력승계는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음**

- 아직 공식적으로 추대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2011년 12월 24일부터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사수 구호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김정은이 사실상 당중앙위원회의 수반인 ‘당 총비서’임을 밝히기 시작했음.
- 북한은 외국에서 보낸 조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로동신문에서 김정은에게 ‘각하’ 또는 ‘공화국 최고영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사실상의 ‘국가수반’이라는 점도 간접적으로 드러냈음.
 - 2009년 개정헌법 제100조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그러므로 김정은에게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가 공식적으로 추대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국방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사진 7〉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사수 구호



자료: 『로동신문』, 2012/01/19.

- 김정일의 사망과 동시에 북한 지도부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출범을 확정지었고, 김정은이 사실상 당 총비서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의 권력승계는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음.
 - 앞으로 당 총비서직을 공식적으로 승계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북한이 오는 4월 중순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당대표자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발표했으므로 4월 중순에 당대표자회가 개최되어 김정은이 당 총비서직에 추대될 가능성이 높음.

- 과거 김정은은 김일성 사망 3년 후에야 공식적으로 당 총비서직을 승계했는데, 김정은은 김일성 사망 5개월 만에 당 총비서직 승계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김일성 사후 김정은이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내세운 것처럼, 김정은도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김정은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음.
- 김정은이 사실상 ‘당 총비서’직을 수행하고 있고 군 최고사령관직에 먼저 추대됨으로써 북한에서의 권력승계가 외부세계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향후 한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사실상 1인자로 부상한 김정은을 상대로 새롭게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사진 8〉 김정은이 리영호, 김정각 등 군 고위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모습



자료: 『조선중앙통신』, 2012/01/01.

**김정은이 사실상
‘당 총비서’직을 수행하고
있고 군 최고사령관직에
먼저 추대됨으로써
북한에서의 권력승계가
외부세계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탈북자 중 최고의 엘리트이고 북한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라는 핵심 고위직을 지낸 황장엽은 한국에서의 북한 급변사태론에 대해 “김정일이 사망하더라도 김일성의 측근들이 이미 다 구축되어 있고 한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또는 무정부 상태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황장엽은 또한 “일부 사람은 북한의 독재체제가 붕괴하면 큰 혼란

한국의 대북 정책은 긴 호흡을 가지고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북한 지도부 내에서 개혁세력이 형성되며 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데 궤변 중에서도 최고의 궤변”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 황장엽은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에는 김정일을 대신할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라고 주장했는데, 100명이 넘는 인물은 당·국가기구·군대·근로단체 등의 부문에서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 실세들로 구성된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을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사망하더라도 북한에서 ‘권력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임.
- 황장엽은 김정일 이후 북한에 대해 자유민주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제언했음.
 - “북한이 스스로 힘으로 덩샤오핑(鄧小平)식 개혁·개방을 시작하면 결국 자유민주체제로 바뀌어 남한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라는 장기적 전망 하에 “김정일 이후의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펴도록 해야지” 선불리 자유민주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임.
 - 북한이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사망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북한 지도부 내에 급진적 개혁파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황장엽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음.
 - 한국의 대북 정책은 긴 호흡을 가지고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장기간의 선군정치로 과대성장한 군부 세력의 영향력이 약화되며, 현재의 스탈린식 개인절대독재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바뀌어 ‘탈김일성-김정일화’가 이루어지고, 지도부 내에서 개혁세력이 형성되며 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기획 및 감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이지영(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지혜(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정성장

現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프랑스 파리 10-낭떼르 대학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역임. 저서로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한울아카데미, 2011) 등이 있음.

주석

- 1) 『로동신문』, 2011/12/20.
- 2) 최선영, “<김정일 死後> 장성택 부부 섭정체제 되나”, 『연합뉴스』, 2011/12/25; 장용훈, “장성택 대장복차림 등장...軍집단지도 예고(종합)”, 『연합뉴스』, 2011/12/25; 장용훈·최선영, “20대 ‘수습’ 대장, 김정은의 모든 것”, 『한겨레 21』, 제892호(2011/12/31), 24-28쪽 참조.
- 3) 이준은, “2010년 북한, 김정은 우위의 김정은-김정일 공동정권 시대 진입”, 『열린북한통신』, 2010/08/05;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모든 것”, 『열린북한통신』, 2010/09/28; 이준은, “김정은, 북한 리더십권력 중 이미 70% 장악”,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2011/08/24 참조.
- 4) 2007년 3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북한 문제 담당 기자들을 국정원 청사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김정일의 셋째 아들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음. 그리고 익명을 요구한 정보당국의 관계자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정보라인은 대북 감청을 통해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한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냈다”고 귀띔 했음.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서울: 늘품플러스, 2010), 96쪽 참조.
- 5) 그런데 정찰총국은 총참모부 산하 기구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이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음. 『2011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통일부, 2011), 207쪽 참조.
- 6)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135-200쪽 참조.
- 7) 『연합뉴스』, 2011/12/20.

JPI 정책포럼 현황

- 장준영 『미얀마의 개혁개방: 원인과 전망』 (2012년 1월)
- 임홍재 『중국의 부상: 베트남의 기회와 도전』 (2011년 12월)
- 신종호 『양안(兩岸) 교류협력의 특징과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2011년 12월)
- 진창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정치변화와 한일관계』 (2011년 12월)
- 장철균 『스위스 중립의 성격과 한반도 중립논의』 (2011년 11월)
- 조성권 『에너지 안보와 오일샌드의 개발: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의 사례연구』 (2011년 11월)
- 김우상 『중견국 외교 협력방안 모색: 한국과 호주의 중심』 (2011년 11월)
- 박영정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의 진단과 전망』 (2011년 10월)
- 정상화 『2012년 위기론 진단과 한국의 대응』 (2011년 10월)
- 박재선 『미국의 유대인파워』 (2011년 10월)
- 마영삼 『공공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정책 방향』 (2011년 9월)
- 정기웅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국 스포츠 외교: 방향성의 모색을 위한 제언』 (2011년 9월)
- 김동성 『동아시아 전략적 3국 관계와 한국외교의 대응방향』 (2011년 9월)
- 우준모 『다시 열리는 푸틴의 시대: 러시아 정치 전망』 (2011년 9월)
- 고선규 『일본의 민주당 정치와 한일관계』 (2011년 8월)
- 정지웅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일전망』 (2011년 7월)
- 조태열 『한국의 ODA 정책과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2011년 8월)
- 홍현익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극동정책』 (2011년 7월)
- 진행남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2011년 7월)
- 양창석 『독일 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2011년 6월)
- 박동훈 『경제위기 이후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2011년 6월)

- 임수호 『북·중경협 현황과 전망』 (2011년 6월)
-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2011년 5월)
- 박상현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 (2011년 5월)
- 김종선 『원자력 사고의 국제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2011년 5월)
- 이면우 『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 (2011년 4월)
- 김병로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략』 (2011년 4월)
- 김동성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2011년 4월)
- 김종섭 『미중관계의 정상화와 대만』 (2011년 3월)
- 고성준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 이홍섭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2011년 3월)
- 김두진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 (2011년 2월)
- 염든재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2011년 2월)
- 정영태 『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2011년 2월)
-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2011년 1월)
- 안찬일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와 체제전환 가능성』 (2011년 1월)
- 황지환 『남북관계의 국제정치』 (2011년 1월)
- 성원용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계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2010년 12월)
- 고상두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조건: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함의』 (2010년 12월)
-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2010년 12월)
- 박홍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한국에 주는 함의』 (2010년 11월)
- 최희식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2010년 11월)

- 김미경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와 안보현실』 (2010년 11월)
- 김수암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2010년 10월)
- 원동욱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2010년 10월)
- 손기웅 『독일통일 20주년에 비춰본 한반도통일의 과제와 전망』 (2010년 9월)
- 이선진 『중국의 대미안마 전략』 (2010년 9월)
- 최경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 전망』 (2010년 9월)
- 전진호 『일본의 한국병합 100년 한일관계의 과제와 전망: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갈등의 해결방안과 협력의 전망』 (2010년 8월)
- 정성장 『북한의 파워 엘리트 변동: 동향과 전망』 (2010년 8월)
- 최명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지속』 (2010년 8월)
- 김재철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2010년 7월)
- 이성우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 (2010년 7월)
- 이애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 (2010년 7월)
- 안병민 『남북해운합의서상 통항 통제조치의 효과 및 전망』 (2010년 6월)
- 서상문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의와 현재적 함의』 (2010년 6월)
- 손병권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과 전망』 (2010년 6월)

THE 7th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2012

"New Trends and the Future of Asia"

31 May - 2 June, 2012
Haevichi Hotel & Resort Jeju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오는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제주평화연구원 주관으로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New Trends and the Future of Asia)"라는 주제로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2012년은 세계 주요국가 지도자들의 교체 시기로 글로벌 리더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제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정치적 위상이 향상되고 선도적 역할이 부상하는 가운데 아시아 내 신질서 구축에 대한 관심과 상호간 이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최근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각국의 경기후퇴 정도가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정부 및 금융산업계의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아시아 지역 협력 증진 및 공동체 건설이라는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평화와 안보를 비롯하여 경제·환경·문화·여성·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정세와 아시아의 정치경제 동향을 분석 평가하여 새로운 국제적 동향과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2012년은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어느 때보다 큰 관심과 지원 속에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약을 맞이하고 있는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동아시아의 미래를 고민하고 개척해나가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일시: 2012년 5월 31일(목) ~ 6월 2일(토)

장소: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주제: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주최:

주관:

후원:



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T. +82 (0)64 735 6531 | F. +82 (0)64 738 6539 | E-mail. jejuforum@jpi.or.kr

www.jejuforum.or.kr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